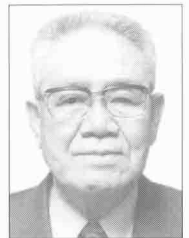


힘찬 새 출발에 열정으로 동참하자

- 제49회 전국대회를 앞두고 회우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



정 장 섭
(본회 통일회원)

확고한 농심으로 온갖 시련을 이겨내면서 묵묵히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전국의 회우동지들의 건승을 축원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겨레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을 기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만 시화연풍을 문기가 쑥스러운 오늘의 참담한 농촌현실입니다.

걸어 온 역사 자랑 말고 새 출발의 계기로 2008년, 무자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60주년으로 회갑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법인은 45세의 중년의 나이로 국가보다 15세가 연하인 셈입니다. 우리 법인의 모태는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운동이고 그 태반은 월간「새농사」지이며, 모체는 중앙종묘주식회사입니다. 역사의 기점을 월간「새농사」창간으로 친다면 52세가 되지만 모태부터 셈을 한다면 우리 나이로 49세가 됩니다.

일정과 장소가 곧 확정이 되겠지만 제49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농민운동 또는 농촌운동으로

본다면 그 연원이 너무나 특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6·25전쟁의 휴전 후 얼마 안된 1950년대 중반에 중앙종묘주식회사라는 중소기업이 농촌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지 월간「새농사」를 창간하고 이 월간「새농사」의 애독자들을 모아서 농업기술의 학습행사를 일으키면서 내어 건 간판이「전국농업기술자대회」였습니다. 무슨 운동이 발족할 때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이 모여서 깃발을 흔들고 목청을 돋우어 조직을 하는 순서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때인지라 1960년의 4·19와 이듬해 1961년의 5·16이란 역사적인 큰 사건을 만나게 되고 1963년의 제4회 전국대회 때 이 운동을 일으킨 중앙종묘(주)의 사장이며 「새농사」발행인인 박갑수 대회장과 건국대학교의 설립자이시며 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 회장인 유석창 박사가 의기투합하여 손을 마주 잡은 것이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운동의 환골탈태로 협회창립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구농에

국(救農愛國)의 영도자인 유석창 박사는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이란 이념의 혼을 불어넣고 초창기의 약 10년 동안 우리협회의 기초를 다져 주었습니다. 1972년 서거 후 뒤이은 류달영 박사는 “농민은 민족의 뿌리, 농업은 나라의 바탕”이라는 가치관과 신념을 내 걸고 20년 동안 특히 통일회원제도에 의한 농업기술진흥관 건립운동을 주도하여 우리법인의 획기적인 증흥을 이룩하였습니다. 역사란 하루아침에 만들 수도 이루어 낼 수도 없기에 좀 장황하게 새로 동참한 젊은 회우들에게 우리법인의 발자취를 간추려서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법인은 유석창, 류달영 두 영도자 이후에 두 사람의 회장에 의해서 15년 동안 운영되어 오다가 2008년 연초부터 윤천영 회장의 새 집행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번 제49회 전국대회를 앞두고 필자는 남다른 감회에 젖게 됨은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벌써! 반세기, 50년의 세월이 흘렀나? 이런 느낌입니다. 지난 역사를 자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오만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날의 공과는 차치하고라도 그 험난한 역사의 흔들림속에서 단 한해도 거르지 않았다는 것은 평가받을 만합니다.

21세기의 창조적 새 출발에 열정으로 동참하자

필자가 지난날을 반추하여 보니 50년 전의 20대가 70대로, 30대가 80대로, 당시의 40대의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 이 모두가 부질없는 상상입니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는 표현이 지나칠는지 모르지만 농촌의 오늘을 어려움을 타개하자면 우리는 대회라는 ‘광장’에 모여서 이마를 맞대고 활로를 모색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법인의 창립원로이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회도 결석하지 않으신 강원도의 한도룡 선생은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싶어서 참

가하는 거지...’ 라는 덤덤하게 털어놓으시던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우리 법인의 운영을 임기동안 책임 질 대표와 임원들이 경선에 의해서 선출된다는 것은 우리 법인의 민주적 발전의 결과입니다. 유석창 총재와 류달영 총재께서 우리법인을 이끌어 오실 때까지 약 30년 동안 우리법인은 대표와 임원의 경선이란 아예 없었습니다. 인사사회에 민주주의 이상의 좋은 제도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공정한 선거입니다. 선의의 경선은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아름다운 경선이 감투싸움으로 변질이 되면 끝없는 파당싸움으로 이어지고 그 조직체의 파멸을 가져 올 큰 병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그 법인성격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서 대표를 위시한 임원 모두가 구성원들을 위한 자기희생과 봉사자여야 합니다.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법인과 법인 기본재산의 정직하고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경선 때 내어 건 법인발전의 공약의 성과와 경영의 결과를 임기만료 때 회원들로부터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서 재선 또는 재신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말을 굳이 인용할 것도 없이 경선이라는 절차가 끝나면 찬반편으로 갈렸던 모두가 화합으로 하나로 단결하여 전진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인의 강령인 3대 혁명의 첫 번째가 “정신혁명으로 민주적 협동화”입니다.

새 집행부가 들어선 후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출발에 우리 회우동지들은 열정적으로 동참할 것을 노파심에서 감히 촉구합니다. 우리 법인은 50년의 역사를 통해서 농민단체로서 올곧은 길을 당당하게 걸어 왔습니다. 이 50년의 역사를 딛고 선도농가로서 농민들의 앞장을 서서 새 천년, 21세기를 개척하여 나아갑시다. ㉞